

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, 취임 이후 첫 전북 건설 현장 방문

☞ 정재근 기자 | Ⓞ 승인 2022.03.09 16:47



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는 8일 익산지사 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 방문해 취임 후 첫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.

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31ha의 농경지 및 시설작물 재배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국고 279억원을 투입해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일원에 배수장, 배수문 및 배수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에 착공해 2026년

12월 완공 목표로 진행된다.

이번 점검은 해빙기 이후 공사 현장내 급경사지 유실·붕괴, 배수장 등 굴착에 따른 가시설 붕괴, 안전시설 설치 상황, 현장 근로자 추락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인 안전조치로 인명·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.

특히, 이병호 사장은 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만큼 건설현장 내 근로자 개인안전보호구 착용 및 출·퇴근 건강상태 확인 등 안전보건조치 이행 상태를 집중·지속적 점검을 통해 공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”며 “더불어 시설작물 재배지역 증가에 따른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영농환경에 맞춘 신규사업 발굴에 힘쓰겠다”고 밝혔다.

정재근 기자

저작권자 ©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정재근 기자